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 , 히브리서, 7b

세션,

히브리서 7:1-8:13: 더 나은 신권, 더 나은 언약(2부)

© 2024 데이비드 데실바 및 테드 힐드브란트

8장 초반에 저자는 예수의 제사장 사역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면서 앞서 논의한 주요 아이디어 또는 주요 요점인 머리뼈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위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고, 거룩한 곳과 주님께서 세우신 참 장막의 사역자이시며, 사람이 아닙니다.

저자는 여기서 논쟁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있으며, 이 지점에서 더 나은 중재 장소에서 예수의 더 나은 제사장적 희생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룰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청중이 저자가 묘사한 위대한 이점을 누리고, 따라서 희망을 위한 근거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추구하기 위해 이전의 헌신에 계속 투자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특히 4장 14절에서 16절, 10장 19절에서 25절의 중심 담론을 둘러싼 실제적인 권고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저자는 청중이 주의와 에너지를 서로에게 중심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희망의 위치로 발견되는 그 중심을 향해 집중하도록 계속 격려합니다.

8장 서두에서 우리는 다시 시편 110편 1절을 듣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서 임명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개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시편 110편에서 이러한 사건들의 순서를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하나님은 이 인물을 하늘로 초대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4절에서 조금 후에 하나님은 이 인물을 새로운 신권의 질서에 임명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시편을 하늘의 신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습니다. 이 신권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창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서 행사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장막, 즉 주님이 세우신 장막에서 행사될 것이며 인간이 행사할 것이 아닙니다.

기원전과 기원후 1세기의 다른 텍스트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 지상 성전을 열등한 성지로 비판하는 경향을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의 연설이 끝나갈 무렵이나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앞에서 변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비판 주제를 암묵적으로 여기에 끌어들이는 듯하며, 그는 지상 성소의 물질적 인간적 기원을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사역하기 위해 가신 하늘 성소의 영원하고 신성하게 만들어진 기원과 대조합니다.

그 장소의 본질은 지상의 어떤 장막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그 천상의 장막을 만든 사람이 지상의 성전을 지은 사람보다 우월한 것처럼요. 저자는 인간이 만든 것과 신이 만든 것, 보이는 지상의 것과 보이지 않는 천상의 것을 생각하는 경향을 이렇게 그려내어 예수께서 제사장직을 집행하시는 더 나은 장소를 강조합니다. 다음 구절은 이 더 나은 제사장이 더 나은 장소에서 바치는 희생을 소개합니다. 이 주제는 9장과 10장에서 꽤 많이 논의될 것입니다.

저자는 모든 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임명되었으며, 따라서 그, 즉 예수는 바칠 것이 있어야 했다고 썼습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의는 히브리서 5장 1절에 주어진 이전 정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토라, 오경, 모세오경의 규정에서 제사장의 주요 업무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도 바칠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자는 이 제사의 본질, 보증, 효능에 대해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그는 암묵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전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4절에서, 만일 그가 땅에 계셨다면,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8장에 있는 1절과 2절의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반대 주장으로, 우리는 사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제사장이심을 봅니다.

반대로, 예수가 아직 지상에 있었다면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는 예수가 어딘가에 제사장이라는 것이고, 그가 지상에 없다면 토라가 규정한 종류의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으므로 그는 하늘에서 제사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자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논리에 관해서, 저자는 예수가 레위가 아닌 유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끌어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미 7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레위의 족보적 후손이라는 점에서 토라의 제사장 자격 밖에 서 계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러한 주장의 일부가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시편 110편 4절에서 선언하는 대로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토라에 의해 규제되고 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자체 규칙이 있는 지상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이며, 유일한 하나님과 합법적으로 연결된 다른 성소입니다.

저자가 하늘 성소에서 예수의 제사장직을 선언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어떤 하늘 성소인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늘의 지형을 의식과 도구가 있는 성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는 무렵에는 하늘과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곳이 사실상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시는 곳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어서 기록하듯이,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완성하려 할 때 경고를 받았듯이, 산에서 보여 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낭송하여 지상 성전의 이차적 본질, 즉 단지 사본에 불과한 것과 지상

성전이나 장막이 모형인 주요 천상 성전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막 장막에 대한 천상적 대응물이라는 개념은 헬레니즘 시대 유대교에서 흔했으며, 이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애굽기 25장 40절의 해석에 호소하는 것도 흔했습니다.

First Enoch에서, 아마도 기원전 3세기 후반이나 2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First Enoch의 일부에서, 저자는 하늘에 있는 두 개의 방이 있는 집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방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천상 거처의 배치는 두 개의 성소, 즉 거룩한 곳과 하나님의 현존이 특별히 위치한 더욱 거룩한 곳이 있는 하나님의 지상 집을 분명히 반영합니다. 기원후 1세기 초반의 헬레니즘 유대교 텍스트인 솔로몬의 지혜도 저자가 솔로몬의 페르소나를 취하면서 이 모티브가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9장 8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거룩한 산에 성전을 짓고 당신의 거하시는 도성에 제단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처음부터 미리 준비하신 거룩한 천막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서기 100 년경의 유대인 묵시록인 두 번째 바룩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의 운명과 파괴에 관해 바룩을 위로하시며, 성전이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실체를 확인하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담과 모세에게 보여 주신 것, 이방 군대가 만질 수 없는 참된 성전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하늘의 성전과 그 다양한 가구에 대한 풍부한 암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이 장막,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이 성전의 존재를 믿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준비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원형이며, 설교자 자신이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말했듯이, 지상의 장막은 저자가 9장 24절에서 말했듯이 그 반대 유형입니다. 그것은 모방, 사본, 그림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본과 그림자와 같은 단어를 접하면 자연스럽게 현실에 대한 플라톤적 정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의에 따르면 실제적인 것은 사상의 영역, 정신적 구성의 영역에 존재하는 반면, 여기 눈에 보이는

세계의 물리적 표현은 단지 사본이나 모델, 그러한 이상적 또는 관념적 유형의 2차적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플라톤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물질적 모방보다 우월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지만, 그는 이러한 신념을 유대교 우주론에 확고히 두었습니다. 즉, 그는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을 사상의 영역과 대조하지 않고,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보이지는 않을 영원한 천상 영역과 대조합니다.

그는 또한 유대-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구원과 종말론의 드라마에 관심을 갖는 것과 일치하는 시간적 틀에 그것을 두는데, 이는 플라톤의 사상에 완전히 이질적일 것입니다. 저자는 이제 6절에서 8장 1절과 2절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논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더 뛰어난 사역을 받았는데, 그 언약은 더 나은 약속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새 언약의 결과이며, 새 언약 자체가 더 나은 약속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보장되며, 확장하여 그것에 붙은 새 언약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것은 저자가 8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설교하는 동안 옛 언약에 대해 하는 가장 놀라운 주장 중 하나로 이끌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에서 저자는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낭송하면서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롭고 더 효과적인 언약을 지지하는 성경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예레미야 본문은 또한 더 나은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암시를 제공하는데, 저자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장 18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은 저자가 6절에서 예수께서 더 나은 약속에 기초한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주장한 것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논증의 다음 섹션으로의 전환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반대의 논증으로 예레미야의 낭송에 접근합니다. 그는 첫 번째가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를 위해 장소를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씁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예레미야 본문을 낭송하여 하나님 자신이 첫 번째 언약을 무효로 제쳐두고, 효과적이고 따라서 더 나은 새 언약을 만들 시간을 정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신탁의 연대기는 중요한 것으로 증명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토라의 규정에 따라 레위 제사장직이 수세기 동안 운영된 후, 하나님은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백성과 맺을 언약을 위해 기존 언약을 제쳐두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그들을 비난하면서, 보라, 날이 오고 있다고 말한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낭송의 첫 부분은 첫 언약을 훌륭하게 이행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을 제공한다. 그들을 비난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내 언약을 고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노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저자는 청중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손으로 인도해 내셨지만 하나님께 반역하여 사막에서 죽게 된 세대의 예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설교자는 히브리서 3:7에서 4:11까지 이미 자세히 설명한 예입니다. 예레미야서 본문의 후반부는 더 나은 약속의 본문을 제공합니다. 이는 내가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참으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요, 그들은 반드시 각 사람에게 자기 동포와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나를 알 것이요, 내가 그들의 악행과 죄악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기 때문이라. 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내면화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겠다는 내적 지식과 헌신에 대해 말한다.

저자는 이어지는 설명에서 이 구절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이 구절은 설교 전반에 걸쳐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피하며,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그의 관심과 분명히 공명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낭송한 한 줄, 각자는 더 이상 자기의 동료 시민이나 이웃을 가르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저자의 권고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신자들이 서로를 가르치도록 명확하게 격려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곳에서 서로를 위한 세계관과 기독교 문화의 정신을 계속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설교 전반에 걸쳐 이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저자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 주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었다고 확언할 것입니다. 그는 2장 3절과 4절, 그리고 6장 4절과 5절에서 성령의 체험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들이 받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충실하라고 권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31-34장의 마지막 구절은 “나는 그들의 악행과 죄악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주장에 중요한 요점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구절들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전체가 나아가는 결론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양심을 더럽게 만드는 이러한 죄들을 결정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러운 침입자를 태워서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은혜와 도움에 대한 온전한 기대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이어지는 장들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피를 바치신 것이 어떻게 이 결정적인 죄의 정화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과 예수의 의뢰인들 사이에 대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는 옛 언약 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설정된 제한과 현저히 대조적입니다.

저자는 이 섹션을 다음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술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새롭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를 낡게 만들고, 낡고 쓸모없게 된 것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본문의 의미, 특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맺을 언약을 묘사하기 위해 새롭다는 형용사를 사용한 것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면서 첫 번째 언약을 오래된 언약으로 만들라고 추론하는데, 이는 언약이 단순히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대에 뒤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무효화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를 지닌다. 저자는 쓸모없어지고 오래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추론을 더한다. 이는 무언가가 이 현실에서 사라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옛 언약을 사라지고 있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창조물에 연결하고, 예수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지속될 언약적 관계적 유대로 제시하여, 어떤 수신자들은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신자들에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높입니다. 저자는 7장과 8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중을 위한 목회적 목표를 발전시켰습니다. 첫째, 그는 청중들에게 예수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계속해서 각인시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우주 질서에서 예수의 위치가 하나님의 지상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부여받은 제사장들의 위치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확립함으로써 말입니다.

아론의 계통과 레위의 더 넓은 계통은 실제로 신의 신성한 역사에서 존중받았지만, 예수와 그의 제사장 계급은 그들의 계급보다 더 높은 차원에 서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성경적 권위에 근거하여 그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계급에 따라

하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예수가 임명된 것에 대해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보이는 성전은 그 모델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청중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비물질적인 영역을 실제적인 것으로 상상하고 시각화하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도시에서 주변 대리석과 석회암으로 조각한 것과 같은 실제적인 지리와 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입니다. 그는 또한 예레미야에게 호소함으로써, 새로운 제사장과의 이 새로운 언약을 위해 첫 번째 언약과 적절하게 임명되고 규제된 제사장직을 제쳐두는 신성한 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홀로코스트 이후 우리 맥락에서 일어난 엄청난 신학적 변화 때문에 주장하기에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반유대주의가 초래한 공포에 직면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모세 언약이 유대인을 위한 길이고 새 언약이 비유대인을 위한 길이며, 각각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동등하게 유효하고 실행 가능하다는 두 언약 신학을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두드러진 사고방식이 되었지만, 그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견해가 아니었고, 종종 주장되는 것처럼 자신의 민족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너무 슬퍼서 그 추세가 역전된다면 자신이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를 바랄 수 있었던 바울의 견해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요점은 청중이 이웃이 가한 압박과 이웃의 적대감으로 인해 잃은 것 때문에 예수와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의 가치와 이 예수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의 가치를 청중에게 강화하려는 저자의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은 더 뛰어난 사제 계통의 사제를 가지고 있으며, 사제적 사역은 영구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신성한 맹세로 뒷받침되고,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 더 나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결코 죽지 않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으며, 따라서 그가 중재해야 할 바로 그 신을 소외시키지 않으며, 창조물 너머의 진정한 지성소인 하나님의 영원한 영역에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제이며, 죄책감을 결정적으로 제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요구 사항에 대한 친밀한 지식을 가져오는 더 나은 언약을 중재하는 사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과,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토라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력에 대한 모세의 규정, 그리고 다윗과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신탁을 살펴보면서 저자는 청중에게 그들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이 관점 역시 인내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이후 지난 5년 또는 10년 또는 어쩌면 20년 동안의 삶의 방향만 본다면,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 취한 궤적에 대해 다소 희미한 시각을 가질 것입니다. 상황은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었지만, 저자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어 자신을 위한 백성을 형성하시는 관점에서 제시하는 이 장기적인 관점을 취한다면, 그들은 놀라운 특권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들의 실패 이후로 준비해 오셨던 더 나은 일들을 이제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바라보았다고 알려진 일들, 선지자 예레미야가 미리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역사 속에서 있는 위치는 실제로 부러울 만한 위치이며, 이웃들이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불리한 위치는 전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저자가 청중에게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께로의 접근에 대해 제공하는 동일한 구원 역사적 관점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2천 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접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에 대한 인간의 접근을 위해 성취된 것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신에게 반응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방식을 바꾼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분 앞에 함께 나아가는 기독교 예배는 잡일이 아니며, 우리의 일요일을 잠식하는 의무가 아니라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확신은 언제든지 예배와 기도로 신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이든 그리스도의 재림이든 신의

면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이전 시대에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혜택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특권을 마치 우리에게 새롭고 신선한 것처럼, 그리고 2천 년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라고 도전합니다. 이 섹션 전체와 특히 8장에서 저자는 물질적으로 보이는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보다 가치가 낮고 덜 안전한 현실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저자가 우리를 경험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서 벗어나, 우리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보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신뢰하고 신경 쓰도록 부추기는 또 다른 지점입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투자를 하나님과 재물로 나누는 대신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저자가 설교의 시작과 끝에 제시한 내용을 붙잡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신뢰할 수 없는 반면, 예수님은 진정으로 안전한 삶을 쌓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이 세상의 보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속삭임보다 더 실제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한, 제자도에 힘, 성실함, 기쁨을 주는 마음의 단일성이 부족할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자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가 이러한 약속과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쌓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